

라오스 (Laos)

2007. 8.

국별조사실

面積	237천 km ²	貨幣單位	Kip
人口(2006)	6.39백만 명	환율(달러당)	10,126.00(2006)
GDP(2006)	35억 달러	會計年度	10.1~9.30
1人當GDP(2006)	548달러		

1.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제성장률	5.8	6.9	7.3	8.3	7.0
재정수지/GDP	-7.1	-3.4	-3.4	-4.3	-4.2
소비자물가상승률	15.5	10.5	7.2	6.8	5.0

자료 : EIU, Country Report, July, 2007

강한 경제성장세 유지

- 라오스 경제는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농업부문의 상대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06년 8.3%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산업구조 : 농업(44.8%), 제조업(29.5%), 서비스업(25.7%)

- 2007년에는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 관광업 등 주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7%대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도로, 다리, 전력시설 등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건설분야, 구리와 금 등의 광업분야 등이 제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라오스와

태국 국경을 잇는 메콩강의 두 번째 friendship bridge가 2006년 12월 개통되면서, 태국과의 교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한편, 외화획득의 중요수단인 관광산업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물가상승 압력 둔화

- 식료품 가격의 하락과 Kip화의 강세 등으로 인해 2006년 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6.8%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부담 가중

- 재정수지는 세수 기반 부족, 높은 외채이자 부담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중임. 2006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 등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임.

2) 국제경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110	-56	-219	-149	-400
경상수지/GDP	-5.7	-2.2	-7.6	-4.3	-8.6
상 품 수 지	-127	-350	-329	-178	-500
수 출	335	363	553	882	700
수 입	462	713	882	1,060	1,200
외 환 보 유 액	209	223	234	327	..
총 외 채 잔 액	2,172	2,530	2,910	3,178	3,429
총외채잔액/GDP	101.6	101.2	102.9	102.4	102.1
D . S . R .	6.8	9.4	12.0	12.0	..

□ 상품수지 적자 확대

- 주요 수출 시장인 태국과 베트남의 수요 증가로 인한 광물, 에너지 분야의 수출 호조세, 미국으로부터 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꾸준히 증가한 섬유부문의 수출 등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건설자재, 기계장비와 연료 수입액 증가로 수입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앞질러 상품수지의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 확대

- 관광수입 증가로 서비스수지 흑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2007년에는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이 8%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태국과의 교역규모 확대

- 라오스 수출의 42.4%, 수입의 69%의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과의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대 태국 수출은 2007년 1-5월 사이 1.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37% 늘어난 수치임. 또한 대 태국 수입도 크게 늘어, 2007년 1-5월 사이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5억 달러를 기록했음.
- 아직까지 양국 무역에서 태국이 압도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전력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라오스의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노동자들의 송금,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해외원조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기준 수입의 4개월분 수준

인 4.5억 달러를 기록중임.

□ 과도한 외채규모

-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조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총외채/GDP 비중이 100%에 달하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 규모가 과중한 편임.
- 양허성 차관 의존도가 크며, 차관의 약 50%는 다자간 기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국간 원조로 지원하고 있음. 향후에도 원조자금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독자적인 경제발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구조적 취약성

□ 산업 및 교역국가의 편중성, 외부요인의 영향 큰 경제 구조

- 농업과 임업이 국내총생산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쌀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자연 재해와 같은 외부요인에 쉽게 타격을 받는 취약한 구조임.
- 최근 의류와 식품가공업, 조림산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 라오스는 수출의 52%, 수입의 75% 가량을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움.

4) 성장잠재력

□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

- 관광산업은 2005년 기준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정부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관광 여행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관광객들을 다양한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는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5) 정책성과

□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 라오스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미국으로부터 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무역자유화 작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6년 말 국회의 부가가치세제 도입 안이 통과되면서, 경제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제조업 시장개방을 통해, WTO가입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국내 시장 개방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내투자 증가와 인도와 유럽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노력도 계속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11월 개최된 라오스 원조공여국회의에서 UN과 36개의

라오스 원조국 및 22개의 원조기구 대표들은 라오스 정부의 제 6차 경제개발계획(2006-2010)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UN은 1.9억 달러, ADB는 2.0억 달러의 원조를 2007-2011년까지 지원할 것으로 약속함.

- 현 정부의 경제개발 노력에 따른 경제개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교역규모 확대와 라오스 주변국들로부터의 해외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라오인민혁명당의 안정된 정치기반 확보

-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LPRP)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체제국으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음. 지난 2006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71명의 조선의원과 44명의 재선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대부분 LPRP 소속이고, 2006년 6월 선거에서 촘말리 사야손 대통령과 부아손 부파반 총리가 당선되는 등 지배체제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통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
- LPRP는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촘말리 사야손 대통령과 부아손 부파반 총리는 온건한 개혁으로 내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약속하면서 내부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정치적 부정부패에 대해 강경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면서도 일당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국외이주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나 반정부 시위는 비교적 약한 편이며, 몽(Hmong)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의 반발도 약한 편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몽(Hmong)족 강제송환 위기

- 라오스 공산정권을 피해 태국으로 밀입국한 몽족 7,000여명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 있음. 그동안 몽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라오스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이들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힘.
- 라오스 소수민족인 몽족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라오스 정부를 지지, 베트남 전을 수행 중인 미국을 지원했으나 75년 라오스 정권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자 탄압을 두려워해 태국으로 탈출했고 지금도 제3국행을 바라는 몽족의 밀입국이 이어지고 있음.

□ 라오스 쿠데타 기도혐의 몽족 지도부 체포

- 전 라오스 군 고위 장성이었던 방 파오 장군을 포함한 10명의 몽(Hmong)족 지도자들이 쿠데타 기도 혐의로 2007년 6월 미국에서 연방검찰에 의해 체포됐음. 이들은 현 라오스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라오스 침투군을 구성하고 라오스에 비밀정부를 수립하려 했으며 각종 무기들을 라오스에 밀반입하려 했음.
- 현재 몽족의 공격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사면과 토지 공여 등을 약속해 몇몇 몽족 세력들이 투항해 오는 등 전면적인 내전, 내란의 발발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3) 국제관계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라오스 정부는 인접한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를 포함한 ASEAN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노선으로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촉진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받고 있음.
- AFTA 체제 안에서 점진적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르는 등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 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한 편이며, 국경 문제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신용평가 추이

- 라오스는 S&P와 Moody's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II : 143/173(2006.3) => 128/173(2006.9) => 132/174(2007.3)
- Euromoney : 143/182(2006.03) => 148/185(2006.9) => 146/185(2007.3)
- OECD : 7등급(2005.4) => 7등급(2006.4) => 7등급(2007.3)

□ 외채상환능력

-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이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공산권으로부터의 지원 비중이 컸으나 현재는 일본, 호주,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음.

- 2003년 8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무상원조 6.7억 달러, 담보대출 4.9억 달러 등 총 12억 달러 규모의 해외원조를 받은 바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 해마다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외채규모 확대로 외채상환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확대 추세

- 최근 들어 교역 및 투자 규모가 소폭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역은 '06년에는 수출 2,300만 달러, 수입 1,7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 라오스 해외직접투자도 '06년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29건, 4,300만 달러를 기록 중임.

(단위: 천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주요 품목
수 출	8,982	13,930	23,328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등
수 입	1,438	2,110	17,760	비철금속, 잡화, 농산물 등

5. 종합의견

- 최근 5년 동안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연평균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2007년에도 건설업, 광업 등의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라오스 수출의 42.4%를 차지하는 태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2005, 2006년에 비해 다소 낮은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만성적인 상품수지의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의 지속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라오인민혁명당은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과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치 분야에서도 부정부패 척결 등의 개혁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

- 현재 라오스는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해외원조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하고 농업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인 경제성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됨.